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3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지역경제총괄과 박태성 과장(2110-5591), 김형석 사무관(5593)	

산업단지에 대학이 간다

- 3개 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 1,350억원 투입 -
- 3.11일, 사업시행계획 공고 -

□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를 일하며 배우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힘

○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작년 10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QWL 밸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 산업단지에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여 청년층에 매력적인 복합 산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현재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4개 산업단지에 민관 공동 1.35조원을 투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

○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입주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취업 및 R&D가 융합**된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이 사업에 5년간('11~'15년) **총사업비 1,350억원**(국비 810억원, 민자 540억원)을 투입하여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3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함

○ **1개 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는 **5년간 평균 450억원**(국비 270억원, 민자 180억원)을 투입하며, 산업단지 규모와 산학융합 수요에 따라 **조성규모를 차등화**할 계획임

□ 산학융합지구 **조성 배경**은

○ 공장 중심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에 교육과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하여 **청년들의 산업단지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학생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음

○ 또한 고령화 시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청년 인력이 산업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음

* 산업단지에는 약 6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의 40%(1.4백만명)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임

□ 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면

○ 산업단지 內 또는 인접지역에 **대학 캠퍼스를 설립**하여 근로자와 학생에게 **산업현장에서 대학 정규교육을 제공**하게 됨

* 현재 산업단지에서 대학이 정규교육을 실시한 것은 시화 산업단지의 산업기술대가 유일한 사례임. 조선대(광주 첨단산업단지), 한밭대(대덕테크노밸리) 등 일부 대학이 산업단지에 연구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을 두고 있으나 정규 교육기능은 없음

○ 산학융합지구에 **기업연구관을 건립**하여 **중소기업의 R&D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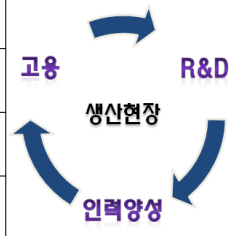
* 산학융합지구내 200여개의 기업 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기업연구관을 조성
*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구소 보유비율은 10.5%에 불과

○ 산업단지 캠퍼스의 **대학 교육 시스템**(교원 임용·평가, 교육 프로그램, 학위 등)을 **현장 실습 중심으로 개편**하여 산업현장에서 교육, 취업, R&D가 선순환 되는 **산학일체형 산학협력 모델**(산학융합 모델)이 새로이 도입됨

* 美, EU 등 선진국과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산학이 일체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미국의 RTP, 스웨덴의 Kista Science City, 핀란드의 울루테크노폴리스, 대만의 신주 과학산업단지, 중국의 중관촌 지구 등)

< 현행 산학협력과 산학융합의 개념 비교 >

구분	현행 산학협력	산학융합
성격	·네트워크형 산학협력	·산학일체형 산학협력
협력공간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분리	·산학협력의 공간적 통합
교원 임용평가	·논문실적 중심	·산업체경력·산학협력 중시
학위	·이론형 학위트랙	·이론형+현장형 학위트랙 병행
학생	·학부생: Lab 미참여 ·단기 인턴십(1~2月)	·3~4학년 학부생 Lab 참여 ·장기인턴십(6月~1년)
근로자	·프로그램 부족	·계약학과 등 평생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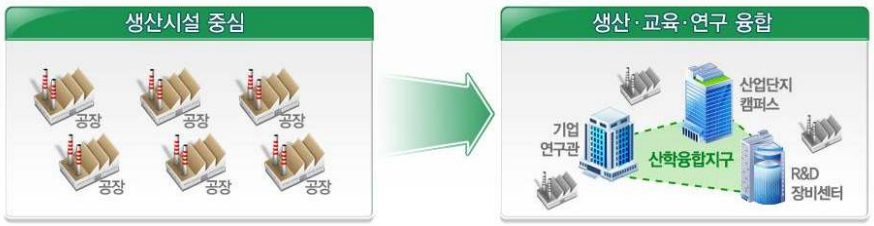
□ 산학융합지구의 **세부 사업내용**은

①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입주를 위한 공간 조성

○ 3~4개 학과, 3~4학년 학생 400여명 규모의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소 200개가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연구관** 설립을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약 20,000㎡ 규모(건물연면적 기준)로 조성

○ **산업단지 규모**(입주기업, 고용인원 등) 및 **산학융합 수요**(기업의 참여 수준 등)를 감안하여 산학융합지구조의 조성규모를 조정

<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기능의 변화 >



② 근로자에게 「先취업→後진학」의 경력 경로를 제공

○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캠퍼스가 **근로자 특별전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동업자대학** 등 다양한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 '12.9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13년부터 확대 시행

③ 학생에게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제공

○ 기업의 인력수요를 대학교육에 반영하고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학융합 R&D, 프로젝트 Lab, R&D 인턴십 등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학점을 부여**하여 **정규 교과화**

④ 중소기업에게 R&D 연구소 설립 등을 지원

○ 중소기업이 기업연구관에 **연구소 설치, 이전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캠퍼스와의 **산학 공동 R&D**를 지원

□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편도 병행**

○ 지식경제부는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대학에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을 부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상반기 중에 개정 완료)

○ 교과부는 '11년 2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대학에 대해 **校地·校舍 확보 의무를 완화**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11.2월 시행)

○ 산업단지 대학은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과 차별화하여 **교원 임용·평가, 교과 및 학위과정 등 대학 교육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개편

- 교원이 산학협력에 전념하도록 **임용시 산업체 경력**을 100% 인정하고, **산학협력 평가 트랙**을 도입하여 **산학협력실적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할 계획

- 현장실습 위주의 **현장형 학위트랙**, 5년만에 석사학위를 받는 **산학협력 석사과정** 도입 등 학위취득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임

< 기존 산학협력 대학과 산업단지캠퍼스의 교육시스템 비교 >

구분		기존 산학협력 대학	산업단지 캠퍼스
교원	임용	산업체 경력 70% 인정	산업체 경력 100% 인정
		5년이상 경력 전임교원 평균 11%	5년이상 경력자 30% 이상(전임+겸임)
	평가	–	산학협력 평가트랙 도입
		산학협력 실적 10% 미만	산학협력 실적 50% 이상
교과	인턴십	1~2개월(방학기간)	6월~1년(학기중, 방학)
	프로젝트 Lab	학부생 미참여	3~4학년 학부생 참여
학위	취득경로	이론형 학위 트랙	현장형 학위 트랙
	수여 학위	4년-학사(학술학위)	4년-학사 또는 5년-석사(산학협력 학위)

□ 지식경제부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월 11일 공고**하여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12년 하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임

○ **사업 신청**은 대학, 기업,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이 가능

○ 광역권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다른 산업단지도 지원이 가능

○ QWL 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점을 고려하여 ▲QWL 밸리 시범 산업단지, ▲기업 참여도가 높은 컨소시엄, ▲민자 출자 비율이 높은 컨소시엄 등을 **사업자 선정 평가시 우대 계획**

□ 김경수 지식경제부 지역경제국장은 "산업단지를 복합기능화하는 **QWL밸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이며, **교육과 취업간 괴리를 축소**하고, 청년들이 모여,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참고 1 광역경제권별 주요 산업단지 현황

권역	산업단지(지역)	가동업체수	고용인원(명)	중기업 비중
수도권	반월(경기)	11,908	195,635	6.8
	서울디지털(서울)	7,701	123,135	5.3
	남동(인천)	5,233	75,054	7.8
충청권	대덕(대전)	644	19,502	8.2
	아산(충남)	309	11,637	23.8
	청주(충북)	257	22,513	23.0
	오창(충북)	126	11,626	33.3
호남권	하남(광주)	928	27,249	11.1
	광주첨단(광주)	349	8,394	5.9
	대불(전남)	298	13,947	13.8
	군장(전북)	145	6,729	10.4
대경권	성서(대구)	2,432	52,823	9.5
	구미(경북)	1,037	68,359	20.2
	왜관(경북)	323	8,824	12.2
동남권	창원(경남)	1,747	80,015	7.2
	명지·녹산(부산)	1,352	26,600	10.0
	울산·미포(울산)	722	88,278	23.0
	진주상평(경남)	516	8,212	5.3

* 강원권과 제주도는 가동업체수 100개 이상의 산업단지 없음
* 중기업 : 종업원수 50~299인의 기업

참고 2 산학융합지구 예산지원 계획

□ **(총사업비)** 5년간('11~'15) **총사업비 1,350억원** (국비 810억원, 민자 540억원)

○ **1개 산학융합지구 사업비(평균)**: 450억원 (국비 270억원, 민자 180억원)

○ 산업단지 규모, 산학융합 수요,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성규모를 차등화하여 예산지원을 **1개 지구 평균 지원액 ± 50% 조정 가능**

□ **(지원내역)** 기반시설 구축 및 산학융합 촉진사업 지원

○ **산학융합 기반시설 구축사업** :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기업지원센터, 인력개발센터 등 거점 공간 조성(2년간 160억원)

* 토지는 대학, 산단공, 지자체 등이 소유·임차한 토지 활용(국비 지원 불가)

○ **산학융합 촉진사업** : 현장실습, 인턴십, 산학융합 R&D 등 산학융합 프로그램을 지원(3년간 110억원)

□ **('11년 지원계획)** 기본·실시설계, 건축비와 산학융합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범프로그램 운용 등에 **1개 지구당 평균 80억원 지원**

* 산학융합지구 조성규모에 따라 예산지원은 표준 사업규모 ± 50% 조정 가능

□ **(여타 지원)** 산학융합촉진사업 추진 시 프로젝트별로 **지경부·중기청의 유관사업 예산으로 우대** 지원

< 표준 산학융합지구 사업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국비	민자	합계
■ 1개 산학융합지구	270	180	450
·산학융합 기반시설 구축	160	160	320
·산학융합 촉진	110	20	130
■ 3개 산학융합지구	810	540	1,350

* 산학융합지구 조성규모에 따라 예산지원은 표준 사업규모 ± 50% 조정 가능

참고 3 산학융합지구 사업자 선정 계획

□ **(신청자격)** 대학, 기업, 지역경제단체,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출연연, 산업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융합지구 사업 추진주체로 선정된 산학연 컨소시엄은 향후 법인으로 전환

□ **(신청요건)** 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 요건의 역량을 보유

① 산단 내 또는 인근에 연면적 20,000m^2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 확보**
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
③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 모델** 도입
④ **근로자**의 「先취업→後진학」 경로,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3개)

○ 광역권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다른 산업단지도 지원 가능

□ **(평가기준)** ①입지, ②거점공간 조성, ③현장맞춤형 교육체제 도입, ④근로자·학생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을 중점 평가

* QWL 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점을 감안하여 QWL 밸리 시범사업 산업단지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우대
* 산학간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①현장맞춤형 대학운영·교육시스템 도입, ②다수 기업의 참여, ③민자분담률이 높은 산학연 컨소시엄 ④산업단지내 조성 경우 우대

□ **(선정절차)** 산업기술진흥원에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선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위원장: 지역경제정책국장)에서 최종 사업자 및 지원금액 결정

참고 4 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대학의 입주 허용**

○ **(현행)** 기존에 대학은 지원기관으로 분류되어 토지가격이 높은 지원시설구역*만 입주 가능

* 산업단지 용도구역 :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 **(개선)** 산학융합지구내 **대학에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저렴한 산업용지 활용**토록 허용

*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하는 연면적 2만㎡이내의 대학으로서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의 규모가 50%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업(산업시설구역 입주 可)으로 인정

□ **교지·교사 관련 대학 제도 개선(교과부)**

○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교사·교지의 ① 소유 요건, ② 면적 기준, ③ 위치변경 인가 절차*를 완화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교과부, '11.2 시행)

< 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만 입주 가능	·산업시설구역도 입주 가능 (일정 요건 충족시)
대학	소유 요건	·교사·교지는 대학설립주체의 소유	·임대 교사·교지 사용 가능
	면적 기준	·교사·교지는 '학생수 × 기준면적' & 최소면적 이상 확보 필요	·교사·교지 면적을 '학생수 × 기준면적'으로 산정
	인가 절차	·대학의 위치변경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가 필요	·교사·교지의 위치 변경시 위원회 인가 면제

참고 5 산학융합 우수사례 : 한국산업기술대

□ 산업기술대 현황

○ 소재 : 시화·반월 산업단지 내 위치 (기업수: 11,000여개)

* 약 3,300여개의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 총정원 : 5,520명 / 교원 : 434명

□ 현장 밀착형 교육시스템 도입

○ 교원 임용·평가시 **산업체 근무경력** 및 **산학협력 실적** 중시

- 교수 채용: **현장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인력**
- 교수 평가: **산학협력실적을 중점 반영**

* 산학협력 실적으로 연봉의 20%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승진시 산학협력 실적을 50% 이상 요구

○ **실습 중심**의 현장형 교육 체제 구축

- 교수, 학생, 기업연구원이 한 공간에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하우스**에 학점을 부여하고 졸업요건화

□ 산업기술대 산학협력 성과

① 전국 대학 중 **최고수준의 취업률** 유지

* 전체 취업률 97.1% 및 정규직 취업률 88.4%(2008, 산기대 내부자료)
(전체 대학의 평균취업률은 68.9%, 산업대 평균취업률은 79.8%)

② 취업후 **직무와 전공과의 일치도**가 높음

* 전공일치도 84.7%(2008, 산기대 내부자료)

③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이 대부분

* 중소기업 취업률 95.4%(2008, 산기대 내부자료)

④ 산학협력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 연평균 매출성장률 28% / 고용증대 8% / 지식재산권 7% 성장('06→'07)